

Freedom Grows Here  
Garden Series #4  
Bo Stern-Brady  
May 12, 2024

자유는 여기서 자랍니다"  
"정원 시리즈 #4"

Four words that will define our future: **Hope, Healing, Freedom, Flourishing**

Healing and freedom can seem similar but they're actually distinct, yet synergistic. I recently got distracted in the midst of studying for something else and ran into a word that intrigued me, so I looked at it closer. As I looked at this one word used four times in the gospels, the beautiful distinction between healing and freedom began to take shape and color and texture. (Sometimes we study the Bible word-by-word, line-by-line...sometimes we study A word over and over to find the principles and promises woven inside of it for us, for today.)

우리의 미래를 정의 짓는 네 가지 단어:

희망, 치유, 자유, 번영

치유와 자유는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별되며, 그러나 상호작용적입니다. 최근 다른 것을 공부하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서에서 네 번 사용된 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치유와 자유 사이의 아름다운 차이점이 형성되고 색과 질감이 부여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씩, 한 줄씩 공부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오늘을 위해 그 안에 엮여 있는 원칙과 약속을 찾기 위해 단어를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Suntribo* = break by crushing, break in pieces, shatter, crush, bruise. It's the word *broken*.

Suntribo (선트리보)" = 붕괴되다, 조각나다, 파괴되다, 으깨지다, 상처 입히다. 이것은 '부서진'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gospels tell us four fast stories of things that get broken. And I have been fascinated by the outcome. Some of the things get fixed, some of them are better off broken - diving into this word will lead us to a bette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reedom and healing available to us in God's garden. Let's follow this thread and see where it takes us.

복음서는 부서진 것들에 관한 네 가지 빠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결과에  
매료되었습니다. 일부는 고쳐지고, 일부는 부서진 채로 더 나아갑니다. 이 단어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자유와 치유에 대한 더 나은,  
깊은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실을 따라가 보고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겠습니다

**1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2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impure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3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more, not even with a chain. 4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5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Mark 5:1-5**

1. 그들은 호수를 건너 가라사대, 게라사인 지방으로 갔더니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가시매, 무슨 부정한 영이 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나아오는지라
3. 이 사람은 무덤에 거주하며 이제는 사슬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나니
4. 이는 그가 종종 족과 다리로 매어져 있어도 그가 사슬을 끊고 발에 놓인 쇠고리를 부수었음이라.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었더라
5. 이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와 산에서 부르짖으며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며 있더라. (마가복음 5:1-5)

The guy has so many issues that are deeply internal. His mental and emotional condition is dire - though it looks like he is very healthy and strong physically. The people don't know how to heal him so they resort to the only thing they know to do: Chain him. Restrain him. (Imagine how this must've felt to the man - trapped in a mental, emotional, spiritual prison, not able to get free and the only thing people want to do is chain him up? Lock him up with this legion of demons wreaking havoc in his head? How cruel. How totally, terribly cruel.) But that doesn't work. He keeps breaking through their attempts to domesticate his disorder and make it work in their society. (I think this shows the actual MAN'S deep desperation to get real help...he doesn't want to be trapped in his condition.) Freedom is doing him no good without healing - he needs both.

이 사람은 매우 심각한 내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는 엄중한데, 신체적으로는 매우 건강하고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치유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를 사슬로 매어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 정신적, 감정적, 영적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며 사람들이 하려는 유일한 일이 그를 사슬로 매는 것입니까? 그의 머리 속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이 수많은 악령과 함께 갇히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완전히, 끔찍하게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장애를 길들이고 그들의 사회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시도를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남자의 깊은 절망이 진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상태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는 치유 없이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그는 둘 다 필요합니다.

How do “shackles” like these show up in our lives? In our world? In our church?

이런 "족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37**The next day,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 large crowd met him. **38**A man in the crowd call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39**A spirit seizes him and he suddenly screams; it throws him into convulsions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It scarcely ever leaves him and is destroying him. **40**I begg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could not.” **41**“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42**Even while the boy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in a convulsion. But Jesus rebuked the impure spirit,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43**And they were all amazed at the greatness of God. Luke 9:37-43

**37.**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영접하더라

**38.** 그 중에서 누리야, 내 아들을 보소서 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더니 그는 외아들이라

**39.** 영이 그를 붙잡아 소리를 질러 부르게 하며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피를 토하게 하며 그것이 그를 괴롭히되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40. 내가 제자들에게 간구하였으되 그가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하니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지 아니하는 불신하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니라
42. 그 아이가 오는데 때마다 귀신이 그를 낙간케 하여 던져 그를 괴롭히게 하나 예수께서 꾸짖으시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어린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시니 다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이히 여기더라" (누가복음 9:37-43)

What is being broken here? It's the word "destroying". It scarcely ever leaves him and is *destroying* him." It's breaking his boy. (Dad: I "beg" you = it's a desperate word in the greek). My son is being broken. He's being pulled apart by a "spirit". Only son = only heir. The totality of his legacy. Jesus is annoyed. Aggravated. His disciples were given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mons in 9:1,6. Jesus rebukes the spirit and heals the boy. Healing stops the breaking that's going on. Healing restores the legacy of the man who interceded for his son. (Feel like your legacy is being threatened? Destroyed? Keep going to Jesus. Fast and pray. Believe. Trust Him.)

여기서 어떤 것이 부서지고 있는가? 바로 "파괴"라는 말입니다. 그는 거의 항상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부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을 간구합니다" = 그리스도어로는 절박한 말입니다.) 내 아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영"에 의해 그의 아들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 =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그의 유산의 전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괴롭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의 제자들은 9:1,6에서 모든 악령에 대한 "권능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를 치유합니다. 치유는 진행 중인 부수기를 멈춥니다. 치유는 그의 아들을 위해 중재한 사람의 유산을 회복합니다. (당신의 유산이 위협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파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계속 찾아가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I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nd they rebuked her harshly. Mark 14:3-5**

"베다니에 있는 사모나의 집에서 시몬 나그네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비싼 향유 알라바스터 병을 가지고 온 여인이 왔다. 그 향수는 진짜 나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자는 병을 깨고 그 향수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서로 분개하여 말하기를 '왜 이런 향수를 낭비하느냐? 이것은 일년의 임금보다 비싼 돈으로 팔 수 있었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여인을 엄하게 책망하더라.'" (마가복음 14:3-5)

The jar is broken into pieces. This is her letting go of her security, her savings, her backup plan, her worth in her world. This is wasting everything on Jesus. This is a different kind of breaking. This is a breaking that leads to beauty. Sacrifice. Poured out love. This is a brokenness we bring to His feet. We don't ask Him to mend the bottle, but we trust him with the offering. This is the kind of brokenness we embrace because we know Jesus is on the other side of what flows out of it. He is receiving something important - maybe our money, maybe our time, maybe our trust?

병은 조각납니다. 이것은 그녀가 안전성, 저축, 예비 계획, 그녀의 세계에서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파괴입니다. 희생. 쏟아져 나가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가져가는 부서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병을 치료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예물을 그에게 신뢰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종류의 부서짐은 우리가 그것에서 흐르는 것의 반대쪽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포용합니다. 그는 중요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Luke 4:18.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each deliveranc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bruised.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Luke 4:18-19 KJV**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눈 속이 어두운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심과 상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 주의 은혜 받을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18-19, 킹제임스 버전)

What's broken here? A heart. Remember our word: to break by crushing. Smithereens. Broken heart. Here's an interesting idea in our culture right now: Broken hearts sell. They sell records. They sell movies. They sell books. They sell tell-all documentaries. I think because it levels the playing field. Most of us can understand the pain of brokenness so we listen with rapt attention to the stories-set -to-music of other people's experiences. But to truly LIVE it...is pain. Sometimes excruciating. Time heals all wounds? Not if even half the people I talk to and pray with are any indication. Sorrow is pretty sturdy. It's resilient. It's light-on-it's feet - old pain can pretty easily move with you into new seasons. (Me. Dating. "Congratulations on moving on. Nope.) Broken hearts are everywhere. I always wonder how we would treat one another if we could see someone's heart condition first.

Our comfort as those who stumble through our pilgrimage here in a world that is not fair or kind or easy, is that Jesus stood in that temple that day and declared his mission statement was to: Heal the broken hearts. Which ones? My best guess: All of them. Mine. Yours. All of them. To heal them to wholeness. To heal them to new life. That healing can happen immediately or gradually but it's a healing that leads to freedom and life.

여기서 무엇이 부서졌나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단어를 기억하세요: 붕괴됨으로 인해 부서짐. 작은 파편으로. 상한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판매됩니다. 음반을 판매합니다. 영화를 판매합니다. 책을 판매합니다. 전부 공개하는 다큐멘터리도 판매됩니다. 이는 경쟁의 경계를 낮춥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파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때로는 몹시 아픕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나요?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입니다. 그것은 가볍게 다가갑니다 - 오래된 고통은 새로운 계절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연애.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아니요.") 상한 마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항상 상호간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험한 세계에서 우리의 순례를 헤매는 사람들로써,  
예수님이 그 날 성전에서 서서 그의 사역 성명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 내 최상의 추측은: 모든 것입니다. 내 것. 너희 것. 모든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함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자유와 생명으로 이끄는 치유입니다.

**Jesus comes to free us from:**

**SHACKLES**

**LIMITATIONS**

**Jesus comes to heal:**

**GENERATIONAL LEGACY**

**HEARTS**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십니다:

족쇄

제한

예수님은 치유하기 위해 오십니다:

세대 유산

마음

### Liturgy for Mother's Day

Mother's Day is complicated for so many. It's become impossible to do a one-size-fits all acknowledgment of motherhood anymore. I don't know where you find yourself today, but I want to bless you.

To the moms who have held hearts and dreams and secrets brilliantly and for those who have figured it out through trial and error,

**Response: Thank you for your selfless love.**

To the moms who are more exhausted than exhilarated by the job right now, juggling calendars and carpool lanes,

**Response:: We are cheering you on.**

To those who have become the kind of mom they never had through sheer force of will and stubborn determination,

**Response: We are amazed by you.**

To those who stepped in to love a child when their biological mom could not or would not,

**Response: We thank you for filling hungry hearts with love.**

To those who are missing a mom or missing a child who has been lost to death or distance or dysfunction.

**Response: We hold space for your sadness today.**

To those who long for a child, but that dream has not yet been realized,

**Response: We pray that God meets you in exactly the way you need Him to.**

May this day and every day find you tucked beneath the wings of the God who loves you like a hen loves her chicks. Closely, carefully and forever.

**Response: Amen**

어머니의 날 예배문

어머니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날 입니다. 이제는 모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꿈, 비밀을 빛나게 지키고 온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그것을 이해한 어머니들에게,

응답: 자기방어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일에 대해 피곤보다는 흥분보다 더 피곤한 어머니들에게, 일정과 카풀 차선을 오가며 바쁜 어머니들에게,

응답: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뜻을 내는 의지와 고집으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종류의 어머니가 된 어머니들에게,

응답: 우리는 당신에게 놀라움을 표합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았을 때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들어선 어머니들에게,

응답: 우리는 사랑으로 굶주린 마음을 채워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나 죽음이나 거리 또는 기능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응답: 오늘은 당신의 슬픔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그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응답: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날과 매일,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앎이 그것의 병아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깝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응답: 아멘

**Benediction.**